

말씀의 샘

믿음은 의리입니다 <요한 계시록 3장 7~11절>

요즘 한국에 왜 이렇게 의리 열풍이 불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의리와 감동, 훈훈함을 동경하는 것은 그만큼 의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무관심, 그리고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기 하나 살기 급급하고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 모든 걸 저 버리는 비열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더니 진짜 그러한 시대가 왔나봅니다.

딤후 3: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있을 큰 특징은 대환난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죄의 시작은 은혜에 대한 배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를 주신 자에 대해 의리를 저 버리는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서 타락한 천사가 그러했고, 창세기 4장에서 하와와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데서 죄는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가롯 유다의 배반이 그러한 배반입니다. 요한 복음 13:1에서 가롯 유다의 배반의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히 11: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은혜 배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지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세상에서 진실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다들 자기 살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며 이용가치가 없을때는 멀어지는 것이 알팍한 인간관계 아닙니까? 좋은 친구, 믿을 만한 친구... 등 세상에 많은 친구가 있지만 진정 날 위해 죽어줄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대신할 의리있는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주님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셨으면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십자가를 지실 것을 끝까지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얼굴에 침뱄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눈을 가리고 얼굴이 통통 붓도록 밤새 모욕을 당하며 맞으셨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이 찢기는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다. 사람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친 십자가를 지고 마을을 통과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을텐데도 주님은 골고다 언덕의 끝까지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박히고 여섯시간 반이나 되는 시간을 피를 흘리며 쓰라린 죽음의 고통을 다 참아 내셨습니다.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의 의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의리... 결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의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릴 향한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으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은 원어상으로도 그야말로 거의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부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외부의 압력 즉,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주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의 의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의 터키 '알레세히르'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고대 도시에 걸 맞는 웅장한 건축물이나 하다못해 잔해 같은 것들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것이라고는 초라한 포도송이 탐뽀이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특산물인 포도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이름을 두 번이나 바꾼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아닌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에 7번이나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바꾸어야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그 도시는 매우 가난하고 불행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그러하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곱 교회 중 제일 막내이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숫자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믿음의 의리를 지켰으니 나도 의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하고도, 중요한 약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독한 지진이 지나가도 돌기둥만큼은 여전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많았던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고 있던 믿음의 식구들에게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는 약속의 표현이었겠지요. 우리 두란노 교회도 이러한 칭찬과 약속을 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때,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네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정조를 분명히 할 때 주님은 우릴 기뻐하시며 인정하실 것입니다.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세상 앞에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생명을 다 쏟아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15. 10. 4 주일에배 이 강화 목사

2015. 10. 11 추수감사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시편 136장 1~11절
특 송 ----- 조선회전도사, 구수진사모- "주께서 주신 동산에"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솔직한 감사"

성 찬 식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